

국제 전자책 포럼 열려·외

〈국제 전자책 포럼〉(International E-Book Forum, IEF)이 지난 7월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국·일본·미국 등 국내외의 전자책 관련 업체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의 정부관계자, JEP(일본 전자책 포럼), OEBF(미국 전자책 포럼) 등이 참여한 국제적 규모의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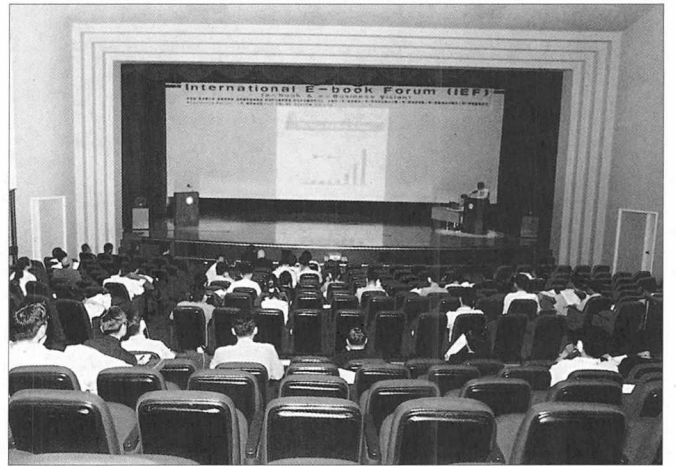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자책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번째 섹션에서는 바로북닷컴 배상비 대표, 후지온라인시스템 미키오 아마야 대표와 일본전자출판협회 유스케 스즈키 부회장이 각각 한국과 일본의 전자책 산업동향에 대해 발표했고, OEBF 의장 더글라스 아마티가 OEBF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고기형 교수는 〈전자책의 DRM(Digital Right Management)과 실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책의 DRM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단복제와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암호화, 사용자 불편 최소화, 유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DRM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

지난 7월 14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책 포럼〉의 한 장면.



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문화관광부 출판심판과 신용언 과장은 “정부가 전자책 상용화를 위해 컨소시엄 설립과 운영 지원, 문화산업기금 융자, 전자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전자책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가 논의된 두번째 섹션에서 한국전자출판협회 김경희 회장은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ook of Korea, EBK)의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김회장은 “EBK는 전자책 기술 표준화와 저작권 문제, 기타 전자책 시장 진흥에 관한 사업을 담당할 기구”라고 설명하고, 지난 5월 EBK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뒤 지금까지의 활동과 EBK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안,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금호 과장은 국내외 전자책 표준화 현황을 설명한 뒤 “미국·일본 등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전

자책 표준화 방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은 전자책 개발의 선결과제를 크게 저작권, 포맷 표준화, 단말기의 편리성과 유용성, 판로 확보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김 호 과장은 전자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표준화, 단말기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공급 기반 강화 정책과 전자책 이용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시장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책 최영찬 대표는 〈지식 유통시장으로서의 전자책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자책 사용이 보편화되면 유통구조에 일대 변혁이 오고, 지적 평등의 실현과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전자책 개발업체들의 투자설명회와 전자책 시연회도 열렸다.



코스닥에 「다음」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상한가 다름이 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디자인이 리드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한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노하우,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것 북디자인(단행본·학습지·잡지·사내외부), 광고, 홍보물(카탈로그·브로슈어·패키지·P.O.P·포스터·캘린더), 일러스트

